

2017 국가직 추가 채용 7급 국어(2017. 10. 21.) 총평 및 해설

남부 해원국어 고혜원

1. 문항별 분석

번호	내용	범위	번호	내용	범위
1	자-타동사의 구분	문법	11	품사	문법
2	한글맞춤법	문법	12	높임법	문법
3	한자어	한자	13	문학의 적용	비문학
4	낱말 유추하기	비문학	14	고전 읽기 <의유당, 동명일기>	문학
5	문장부호	문법	15	고쳐 쓰기	비문학
6	한자성어	한자	16	논증 방식	비문학
7	어휘의 특징	한자	17	지문의 이해	비문학
8	서술자의 견해	비문학	18	고전 이해 <박인로, 선상탄>	문학
9	개요 쓰기	비문학	19	외래어 표기법	문법
10	일치, 불일치	비문학	20	현대 시의 이해	문학

2. 분야별 분석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및 한자
6(30%)	8(40%)	3(15%)	3(15%)
단답형 지식 문제 8(40%)		박스형 지문 및 이해 12(60%)	

3. 전체 총평

1. '2017 국가직 추가 채용 공무원 7급' 국어 문제는 최근 공무원 기조에 맞추어 전 범위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만 비문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박스형 지문 이해 문제의 문항수가 많았던 만큼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얼마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가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2. 14번, 18번의 고전 문학의 지식을 묻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얼마만큼 최소화했는지가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고전 문학 문제의 경우, 평소 문학 수업의 해당 부분을 잘 정리해 두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만큼 평상시 이론 수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비문학과 연계한 한자어 문제, 문학과 연계한 비문학 문제, 한자와 연계한 문학 문제와 같이 **분야를 포괄하는 문제들**이 여럿 출제되었다. 포괄적인 이해 및 암기와 적용의 학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4.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풀이 및 여러 특강을 통해 다룬 동일한 문제와 내용이 출제되었다. 늘 그러하듯이 수업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더욱 진중한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시험을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의 적중 표시는 시험 직전 5주 완성이로 구성되었던 국가직 추가 채용 문제 풀이 수업에서만 찾아 구성하였다. **최선을 다한 모든 수험생들께 마음을 모두 모아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응원한다.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13번, 4회 20번, 5회 17번

- ① 차에 치다
- ② 고기를 재다
- ③ 날이 개이다
- ④ 담배를 피다

정답: ②

[해설]

※ tip!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란 뜻을 가진 말은 ‘재다’가 맞다. 또한 ‘재다’의 본말인 ‘재우다’로 써도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고기를 재다.’와 ‘고기를 재우다.’ 모두 바른 표현으로 모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다.

[오답 정리]

- ① 치다→치이다: ‘차에 부딪히다’의 의미이므로 ‘치다’의 피동사인 ‘치이다’를 써야 한다. ‘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①에는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다.
 - 차가 사람을 치다.(O) / 차에 사람이 치이다.(O)
- ③ 개이다→개다: ‘흐리거나 굵은 날씨가 맑아지다.’란 뜻을 가진 낱말은 ‘개이다’가 아니라 자동사 ‘개다’이다. ※ ‘개이다’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낱말이다.
- ④ 피다→피우다: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란 뜻을 가진 단어는 ‘피다’가 아니라 ‘피우다’다. ‘피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데, ④에는 목적어 ‘담배를’이 쓰였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다’가 아니라 타동사 ‘피우다’를 써야 한다.
 - 꽃이 피다.(O) / 담배를 피우다(O).

2.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9번, 3회 5번

- ①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
- ② 쓱쓱쓱, 명중률, 푸주간
- ③ 등교길, 늠름하다, 깡충깡충
- ④ 돋보이다, 거적떼기, 야단법석

정답: ①

[해설]

반듯이	어근이 ‘스’로 끝나면 부사 파생 접미사 ‘-이’를 취한다. 따라서 ‘반듯이’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다.
수나비	‘양, 염소, 쥐’를 제외한 말은 모두 ‘수-’가 붙는다. 따라서 ‘수-+나비’가 결합한 말은 ‘수나비’가 맞다. ‘암-/수-’는 모두 접사로 접사 ‘수-’뒤에는 원래 명사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 12가지: 숫양, 숫염소, 숫쥐 / 수탉, 수평아리, 수캐, 수강아지, 수키와, 수틀찌귀, 수태지, 수탕나귀, 수컷
에두르다	‘에두르다(에두르다 - 에두르고 - 에두르지 - 에둘러)’의 의미로 ‘엇둘리다, 예두르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에두르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에두르

	<p>다'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다.</p> <p>※ 에두르다[동사]</p> <p>1. 에워서 둘러막다. [예] 경찰이 집을 에두르고 범인에게 자수하기를 권했다.</p> <p>2.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다. ㄴ에둘러대다·에둘러치다.</p> <p>[예] 에두를 것 없이 바로 말해라./그가 말을 에둘러 하기는 하였지만 대충 알아들었다.</p>
--	---

[오답 정리]

② '쓱쓱쓱, 명중률'의 표기는 옳다.

<p>푸주간 → 푸줏간</p>	<p>어원은 한자에서 왔으나 형태가 바뀌어 고유어 처리하는 명사 '푸주'와 한자어 '간(間)'의 합성어로, 합성되는 과정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간]으로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 현상이 나타나며 '푸주'를 고유어 취급하여 사이시옷을 받쳐 '푸줏간'으로 적어야 한다.</p> <p>※ 다만 '대장간/외양간'의 '간'은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대장간/외양간'은 파생어이다.</p>
----------------------	--

③ '늪름(凜凜)하다, 깡충깡충'의 표기는 옳다.

<p>등교길 → 등곶길</p>	<p>한자어 '등교(登校)'와 고유어 '길'의 합성어로, 합성되는 과정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곶]로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등곶길'로 적어야 한다. ※ 등곶길(O)/하곶길(O)/최곶값(O)/최곶값(O)/장곶빛(O)</p>
----------------------	--

④ '돋보이다, 야단법석'의 표기는 옳다.

<p>거적떼기 → 거적때기</p>	<p>'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떼기'가 아니라 '-때기'다. '-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p> <p>※ · 거적때기[명사]: 헨 거적 조각</p> <p>· -때기(접사):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p> <p>[예] 배때기/귀때기/불때기/이불때기/송판때기/표때기.</p> <p>· -떼기(접사):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부엌떼기/새침떼기/소박떼기.</p>
------------------------	---

3.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18번, 400제 54p 4, 5번

- ① 지름길 - 捷徑
- ② 비웃음 - 苦笑
- ③ 마름질 - 裁斷
- ④ 게으름 - 懈怠

정답: ②

[해설]

'고소(苦 쓸 고, 笑 웃을 소)'는 '쓴웃음'이란 의미다. '쓴웃음(어이가 없거나 마지못하여 짓는 웃음)'과 '비웃음(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다. '비웃음'의 뜻을 가진 한자어는 '비소

(誹 험뜯을 비, 笑 웃을 소), '일소(一 한 일, 笑 웃을 소)', '조소(嘲 비웃을 조, 笑 웃을 소)' 등이 있다.

[오답 정리]

- ① '첩경(捷 빠를 첩, 徑 지름길 경)'은 '지름길'이란 의미이다.
- ③ '재단(裁 마를 재, 斷 끊을 단)'은 '마름질'이란 의미이다.
- ※ 마름질[명사]: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
- ④ '해태(懈 게으름 해, 怠 게으름 태)'는 '게으름'이란 의미이다.

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4회 17번, 5회 17번, 400제 95p 71, 72번

굴동마을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속아내서 (㉢) 환해졌는데 그래도 (㉣) 울창했던 것인지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

	㉠	㉡	㉢	㉣
①	뻑뻑이	무성히	미처	자못
②	무성히	촘촘히	겨우	미처
③	촘촘히	뻑뻑이	워낙에	겨우
④	뻑뻑이	무성히	자못	워낙에

정답: ④

[해설]

- ㉠ 하늘을 감출 정도의 대밭이라면 '뻑뻑이'가 어울린다.
 - ㉡ 길이 어둡고 서늘할 정도라면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상황이므로 '무성히'가 어울린다.
 - ㉢ 이전보다 훨씬 환해진 상황이므로 '자못'이 어울린다.
 - ※ 자못[부사]: 생각보다 매우
 - ㉣ 본래 울창했던 곳이란 의미이므로 '워낙에(본디부터)'가 어울린다.
-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적절한 것은 ④이다.
- ※ ㉠, ㉡에는 선택지 모두가 가능한 반면 문제의 열쇠는 ㉢, ㉣이 가지고 있다.

5.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0제 35p 22, 23, 24, 25번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데뎛점을 쓴다.
-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정답: ④

[해설]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뒤에’만 물음표를 쓴다. 따라서 각 물음의 뒤에 모두 물음표를 쓴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각 물음 뒤에 물음표를 쓰는 것은 독립된 물음일 때이다.

[보충] 문장 부호	
가운뎃점	(1) 쉽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 ② ㉠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쉽표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 ③ ㉠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물음표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 ④ ㉠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 ① ㉠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나. /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6.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19번, 3회 15번, 4회 12번

欲速則不達

-《論語》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정답: ③

[해설]

‘욕속즉부달(欲 하고자할 욕, 速 빠를 속, 則 곧 즉, 不 아닐 부, 達 이를 달)’은 빨리 하려고 욕심

내면 (오히려)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㉓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와 의미가 통한다.

[어휘]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서 발이나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거치거나 걸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이라 세간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혹은 **주위에 조심스러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거리질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향모 되지 않는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향모(黃毛): 족제비의 꼬리털. 뾰뾰한 세필(細筆)의 붓을 만드는 데 씀.
-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힘에 겨운 일을 **역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

7. 다음 글을 읽고 ㉑과 ㉒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5회 11번, 400제 54p 2번

일반적으로 ㉑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㉒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 | | | |
|---|-----|-----|
| | ㉑ | ㉒ |
| ① | 다彩性 | 規範性 |
| ② | 動態性 | 靜態性 |
| ③ | 模糊性 | 明示性 |
| ④ | 生成性 | 死滅性 |

정답: ②

[해설]

‘입말’은 ‘글말’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㉑은 ‘동태성(動 움직일 통,態 모양 태, 性 성품 성)’의 특징을, ㉒은 비교적 서서히 변한다고 했으므로 ‘정태성(靜 고요할 정,態 모양 태, 性 성품 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 정리]

	㉑	㉒
①	다채성(多 많을 다, 彩 무늬 채, 性 성품성)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어울리어 호화스러움.	규범성(規 법규 규, 範 법범, 性 성품성) 규범이 되는 성질이나 특성.
③	모호성(模 법모, 糊 풀호, 性 성품성)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음.	명시성(明 밝을 명, 示 보일 시, 性 성품성)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④	생성성(生 날 생, 成 이를 성, 性 성품 성)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	사멸성(死 죽을 사, 滅 멸할 멸, 性 성품 성) 죽어 없어짐.
---	---	--

8.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5번, 2회 8번, 4회 14번

“이빨을 준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라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라 답하리라. 다시 “이빨로 먹이를 씹어 먹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굽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이미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만들었다면 트랙에서 굶어 죽었겠지요.”라 답하리라. 내가 크게 웃으며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가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려 한 것일진대 이제 저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리려 한다면 어금니가 먼저 땅을 터이니 이른바 먹이를 씹는 데 도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라 말하리라.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돌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이른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

- 박지원, <상기(象記)>

- ①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 ③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
-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정답: ②

[해설]

※ tip! 글의 시작이 대화의 예시로 구성된 것은 대화의 말미에 주제가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문제는 ‘필자의 견해’를 묻고 있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부분을 통해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정리]

- ①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

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부분을 볼 때, 쥐와 범 모두에게 천하무적의 대상이라는 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선택지와 달리 코끼리의 코가 길어진 것은 어금니가 먼저 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나타나지만, 이것 또한 사람들의 견해이고 필자의 견해는 아니다.
-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면 닭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필자의 견해가 아니며, 하늘의 이치는 더더욱 아니다.

[작품 정리] 박지원, <상기(象記)>	
갈래	고전 수필, 記(기)
성격	묘사적, 교훈적, 비유적
주제	① 좁은 틀에서 벗어나 넓게 생각하자. ② 고정 불변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9. 다음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5회 8번, 400제 70p 1, 2

<p>I. 서론</p> <p>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p> <p>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p> <p>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p> <p>1. 홍보 부족</p> <p>2. 참여 의식 부족</p> <p>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p> <p>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p> <p>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p> <p>1. 홍보 강화</p> <p>2. 국민의 공감대 형성</p> <p>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p> <p>4. 연결망 구축</p> <p>IV. 결론</p>

-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정답: ③

[해설]

‘Ⅱ’에서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Ⅲ’에서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tip! 개요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장애 요인)은 반드시 해결책(활성화 방안)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 결론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책 중심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오답 정리]

- ① ‘Ⅲ’에서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Ⅳ. 결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전체 개요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어색한 내용이 된다.
- ② ‘Ⅰ. 서론’에서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린 것은 맞다. 그러나 논의 초점은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과 해결 방안이다.
- ④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은 ‘Ⅰ. 서론’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7번, 3회 9번, 400제 83p 22, 23번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波]’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쓰나미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하고 바다도 무척 잔잔했다고 말한다.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끈을 양쪽으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위로 솟았다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다.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쓰나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고, 그중 일부는 원래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 ① 쓰나미는 물 자체의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②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 ④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

정답: ④

[해설]

1문단의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波]’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부분을 통해 쓰나미가 일본어 합성어란 설명은 확인이 된다. 그러나 마지막 문단의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부분이나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등의 내용을 볼 때, 가까운 바다로 올수록 더 위협적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란 설명은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정리]

- ① 2문단 끝에서 쓰나미의 원리는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과 3문단 처음의 “해안에 나타나는 ~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 ② 1문단의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의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20번, 5회 18번, 400
제 19p 16, 18, 20

- ①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 ②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 ③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 ④ 노장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답: ①

[해설]

①의 ‘많다’만 품사가 형용사이고,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품사가 동사이다. 따라서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이다.

[오답 정리]

- ② ‘밝다’가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dawn]’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품사는 동사가 맞다. ※ ‘밝다’가 ‘불빛 따위가 환하다.[light]’의 의미일 때는 품사가 형용사다.
- ③ ‘크다’의 사동사 ‘키우다’의 품사는 동사다.
※ ‘크다’가 ‘자라다[grow]’의 뜻일 때는 동사, ‘길이, 넓이, 부피 등이 크다[large, big]’의 뜻일 때는 형용사이다.
- ④ ‘늙다’의 품사는 동사다.
※ ‘늙다’의 반의어인 ‘젊다’의 품사는 형용사다.

[보충] 동사와 형용사의 판별

기준	동사	형용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과 결합 여부	○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 여부		
명령형(-아라/-어라), 청유형 어미(-자)와 결합 여부		
의도의 연결 어미 '-려'와 결합 여부		
목적의 연결 어미 '-러'와 결합 여부		
'-고 있다'와 결합 여부		
의문형 어미	'-느냐'	'-냐'

12.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7번, 400제 22p 10, 11

-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④ 아버님께서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정답: ④

[해설]

'여쭙다'는 '웃어른께 말씀을 올린다.'란 의미이므로 객체 즉 부사어를 높일 때 사용한다. 즉 부사어가 '아랫사람들에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여쭙어' 대신 '물어'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

→ '여쭙다'와 '여쭙다'가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오답 정리]

① '말씀'은 높임과 낮춤의 뜻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①의 쓰임은 적절하다.

→ '저의 말씀을 (당신께서)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제가) 섭섭합니다.

※ 곡해(曲解)하다[동사]

1. 사실을 옳지 아니하게 해석하다.

2.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아니하게 이해하다.

② 앞의 문장은 '주어' 그분을 높이는 주체높임법으로, '걱정'이 중간에 들어와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고, 뒤의 문장은 목적어 '그분을' '배려해 드리다'라고 하여 객체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②의 높임법 사용은 자연스럽다.

→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우리가) (그분을)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③ 주어인 '당신께서'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당신'은 앞의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다.

→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 (우리가) (그 물품을)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당신(當身)

1.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2.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3.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4.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5.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13.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율격에 맞지 않는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5번, 400계 126p 8번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 (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과음보+평음보+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②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③ 多情도 病人 냥혀여 줌 못 드러 흐노라
- ④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정답: ①

[해설]

제시된 글의 설명에 따르면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3음절 또는 그 이하)+과음보(5음절 이상)+평음보(4음절)+소음보(3음절 또는 그 이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①은 이를 어기고 있다. ※ tip! 시조 종장의 3·5·4·3의 음수율에 어긋나는 선택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시구	人間을(3)	도라보니(4)	머도록(3)	더욱 도타(4)
음보	소음보	평음보	소음보	평음보
판단	○	×	×	×

[오답 정리]

②

시구	千里에(3)	외로운 꿈만(5)	오락가락(4)	흐노매(3)
음보	소음보	과음보	평음보	소음보
판단	○	○	○	○

③

시구	多情도(3)	病人 냥혀여(5)	줌 못 드러(4)	흐노라(3)
음보	소음보	과음보	평음보	소음보
판단	○	○	○	○

④

시구	님 向흔(3)	一片丹心이야(6)	가실 줄이(4)	이시랴(3)
음보	소음보	과음보	평음보	소음보
판단	○	○	○	○

과음보는 5음절 이상이라고 제시 글이 설명하고 있음.

[보충] 시조

개념	①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 ② 주로 사대부의 서정을 간결한 형식 속에 담아낸 우리 고유의 정형시
특징	① 3·4조 또는 4·4조의 4음보로 이루어짐.

	②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으며, 종장의 음수율은 3·5·4·3이 일반적.
의의	처음에는 단아하고 간결한 형식이 사대부 계층의 취향에 맞아서 발달했지만, 점차 향유 계층이 확대되어 국민 문학으로 승화됨.
종류	① 평시조 ② 엷시조 ③ 사설시조 ④ 연시조

14.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20번, 400제 82p 24번

이랑이 소리를 높히 허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 밧 흥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곶흔 줄이 붉기 더욱 기이허며 기운이 진흥 곶흔 것이 초초 나 손바닥 너비 곶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곶더라. 초초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리밤 곶흔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곶고 뭍고 통낭허기논 호박도곤 더 곱더라.

- ①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 ③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답: ③

[해설]

'원순 모음화'는 'ㄴ, ㅃ, ㅍ, ㅁ'의 입술소리(순음) 다음에 오는 평음 'ㅡ'가 자음의 영향을 받아, 원순 모음 'ㅜ'로 바뀌는 현상이다. 15C 물[水], 불[火], 풀[草]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물, 불, 풀'로 변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시된 <동명일기> 부분에서는 '숯불빛(숯불 빛)'에서 '불'이 아니라 '불'로 표기했기 때문에, '숯불빛'은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다. 따라서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다만, '물밧출(물 밧을)'과 '물밧(물 밧)'에서 '물'이 아니라 '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는 원순 모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다.

[오답 정리]

① '혼철 표기(중철, 거듭 적기)'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방법이다. '물밧출(물 밧을)'이 그 예다.

이어 적기(연철) 물밧출	거듭 적기(혼철, 중철) 물밧출	끊어 적기(분철) 물밧을
------------------	----------------------	------------------

- ② '붉기(붉기), 통낭허기(통랑하기, 속까지 비치어 환함)'에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 ④ 현대 국어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그런데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곶더라.(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에서 '의'는 부사격 조사 '에'로 쓰였다.

[현대어 풀이]

이랑이 소리를 높히 허야 나를 불러, "저기 물 밧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밧 흥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허며, 기운이 진흥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작품 정리]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갈래	한글 수필, 기행 수필
성격	사실적, 묘사적, 비유적, 예찬적
제재	동해의 월출과 일출
주제	귀경대에서 본 월출과 일출의 장관
특징	① 여성 특유의 섬세한 표현이 드러남. ② 월출과 일출 광경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함.

15. 다음 편지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20번, 2회 17번, 4회 18번

㉠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잡아 주셨지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어쭙잖은 제가 그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가능한 자주 ㉧ 연락드릴게요. 내내 평안하세요.

-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서는'으로, ㉣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 ③ 의미를 고려하여 ㉢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 ④ ㉤과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

정답: ③

[해설]

㉢	'마다하다'는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다.'란 의미이다. 문맥상 거절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	'가능한'은 형용사 '가능하다'가 관형형 어미 'ㄴ'을 취하여 '관형어'가 되었다. 따라서 뒤에 '체언'이 와야 하는데, '자주'는 부사이므로 어색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관형어) 한(명사) 자주(부사)'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되도록(부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부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정리]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라는 앞의 설명만 옳다.

㉠	'그동안(명사)'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만큼의 시간적 길이. 또는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이란 뜻을 가진 한 단어다. 따라서 '그동안'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있다'의 어간 '있-'에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리(을)지'가 연결된 형태다. 용언의 경우 '어간+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있을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tip! ‘지’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문장에서만 ‘의존명사’이다.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으로”라는 앞의 설명만 옳다.

㉠	주체높임법에서 주격 조사 ‘께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인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붙여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 선생님은(O) / 선생님께서는(O)
㉡	주어는 ‘선생님의 정성’으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붙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은 그대로 ‘고마웠던지’를 써야 한다.

④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라는 뒤의 설명만 옳다.

㉢	<p>‘어쭙잖다’가 어법에 맞는 표기이므로 ‘어쭙잖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어쭙잖다’라는 낱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맥상 ‘어설프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용사 ‘어쭙다’의 표현도 가능하다.</p> <p>※ 어쭙잖다(형용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 2. 아주 서투르고 어설프다. 또는 아주 시시하고 보잘것없다. <p>※ c. f. 어쭙다(형용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이나 행동이 익숙지 않아 서투르고 어설프다. 2. 몸의 일부가 자유롭게 못하여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 3. 어쩔 줄을 몰라 겹연쩍거나 어색하다.
㉣	‘연락드리다’의 어간 ‘연락드리-’에 어미 ‘-르게’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따라서 ‘연락드릴게요’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발음은 [-게요]로 소리 나지만 표기는 예사소리로 해야 한다.

16. 다음 글과 논증 방식이 가장 가까운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1번, 2회 11번, 400제 71p 2번, 8번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뽀뽀를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운동선수가 뽀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도전하려는 의지가 수반될 때에 뽀뽀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다.

- ①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 ②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
- ③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지름이 큰 도관은 지름이 작은 도관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지름의 전선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한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로의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정답: ③

[해설]

※ tip! 문두의 '논증 방식'이라는 낱말에 주의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땀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익숙한 현상에 빗대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제시된 글에 사용된 논증의 방식은 '1:1, 공통점, 다른 범주'의 '유추'다. 이처럼 '유추'가 사용된 것은 ③이다.

③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이라는 익숙한 현상에 빗대어,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정리]

- ①, ②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논증 방식은 '연역법'이다.
 ④ 개별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란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논증 방식은 '귀납법'이다.

17. 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3번, 400제 123p 6번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 ①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②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군.
 ③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로 표현되겠군.
 ④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정답: ③

[해설]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가 아니라 ‘안 좋다(ungood)’로 표현되겠다고 해야 올바른 반응이다.

[오답 정리]

- ① 제시된 글에서 설명한 내용이 ‘빅브라더’의 아이디어라고 했기 때문에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이란 반응은 적절하다.

② 굳이 새로운 말을 만들지 않고, 반의어는 ‘un-’만 붙인 것으로 한다면 반의어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또 강조하는 말은 ‘plus’나 ‘doubleplus’를 붙인 것으로 한다면 동의어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군.’이란 반응은 적절하다.

④ 《신어사전》에 핵심적인 언어만 남게 되면, ‘un-’, ‘plus-’나 ‘doubleplus-’를 붙인 단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이란 반응은 적절하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2번, 4회 10번, 400제 129p 18번

<p>時時로 멀이 드러 北辰을 바라보며 ㉠ <u>傷時 老淚</u>를 天一方의 디이느다. ㉡ <u>吾東方 文物</u>이 漢唐宋에 디랴마는 …(중략)… 吾王 聖德이 欲并生 히시니라. ㉢ 太平天下에 <u>堯舜君民</u> 되야 이셔 日月光華는 朝復朝 히얏거든 ㉣ <u>戰船</u> 트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 히고 秋月春風에 놓히 베고 누어 이셔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히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 박인로, <선상탄(船上歎)></p>
--

- ① ㉠: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을 볼 수 있다.
- ② ㉡: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 ③ ㉢: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을 볼 수 있다.
- ④ ㉣: 안빈낙도보다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은 태평성대가 와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 화자의 태도를 담은 것이지,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담은 것이 아니다.

[오답 정리]

- ① ‘傷時 老淚(상시 노루, 시절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란 표현에서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을 볼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의 표현이 맞다.
- ③ ‘太平天下에 堯舜君民(태평천하에 요순군민, 태평성대의 백성) 되야 이셔’이란 표현을 통해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어 풀이]

時時(시시)로 멀이 드러 北辰(북신)을 바라보며
 ㉠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느다.
 ㉡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 …(중략)…
 吾王(오왕) 聖德(성덕)이 欲并生(욕병생)하시니라.
 ㉢ 太平天下(태평천하)에 堯舜君民(요순군민) 되야 이셔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조부조)하얏거든
 ㉣ 戰船(선상) 트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호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높히 베고 누어 이셔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호노라.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리는구나.
 ㉡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라마는, …(중략)…
 우리 임금님의 거룩한 덕이 너희와 다 같이 잘 살기를 바라시니라.
 ㉢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의 화평한 군민처럼 되어 있어,
 해와 달의 빛이 매일 아침마다 광영하거든,
 ㉣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배를 타고 늦도록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어,
 성군 치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작품 정리]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갈래	가사, 전쟁 가사
성격	우국적, 비판적, 기원적
제재	임진왜란의 경험
주제	전쟁에 대한 한탄과 우국충정(憂國衷情) 및 평화에 대한 기원
특징	① 민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룸. ② 한자 성어와 고사의 인용이 많음. ③ 왜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나타남.
의의	<태평사>와 함께 전쟁 가사의 대표작

19.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13번, 400제 38p 16, 17, 20

ㄱ. 커미션(commission)	ㄴ. 콘서트(concert)
ㄷ. 컨셉트(concept)	ㄹ. 에어컨(←air conditioner)
ㄴ. 리모콘(←remote control)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ㄴ

정답: ②

[해설]

ㄱ의 '커미션', ㄴ의 '콘서트', ㄹ의 '에어컨(에어컨디셔너)'의 표기는 옳다.
→ '커미션'은 '중개료'로, '콘서트'는 '연주회'로 순화할 수 있다.

[오답 정리]

ㄷ. 컨셉트→콘셉트

→ '콘셉트'의 순화어는 '개념'이다.

ㄹ. 리모콘→리모컨

→ '리모컨'의 순화어는 '원격 조정기'이다.

20.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4회 15번, 5회 20번, 400제 131p 21번

(가) 농업박물관 앞뜰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벼의 한살이를
일려주던 한 아버지는 그 허수아비가
지키는 참새떼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시다
그 허수아비가 왜 진짜 허수아비인지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 이문재, <농업박물관 소식>

(나) 바닥에 바짝 옆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 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 문태준, <가재미>

(다) 싸리재 너머 / 비행은 떴다 //
붉은 밭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 호미 든 손으로 차양을 만들며 //
남양댁 / 소리치겠다 //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 진평이가 몬다

- 윤제림, <공군소령 김진평>

(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지만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수십 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갈대였을까
갈대같이 말라서 쓰러져 죽고 마는
아무 생각 못 하는 개미떼들이었을까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고
생각하는 갈대답게 아프리카를 본다

- 마종기, <아프리카의 갈대>

- ① (가)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② (나)는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③ (다)는 '비행기'를 소재로 '남양덕'과 대화를 주고받는 화자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 ④ (라)는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정답: ④

[해설]

※ tip! 비문학처럼 정보의 일치, 불일치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수십 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아무 생각 못하는 개미떼'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배려하기는커녕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갈대'라고 어깨에 힘을 주지만 한없이 비루한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이 잘 나타나 있다.

[오답 정리]

- ① (가)의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지도 않았다. 어린 아들과 아버지를 화자가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나)에서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넨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지도 않았다. '가재미'는 그녀와 나를 비유한 표현일 뿐이다.
- ※ 작품 전문은 암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른 '그녀(큰어머니)'의 모습을 착 가라앉은 가재미로 비유하고 그 옆에 누워 있는 자신도 '가재미'로 표현하고 있다. 표준어는 '가자미'이다.
- ③ (다)에서 '비행운'을 보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소재로 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맞다. 그러나 '남양덕'과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고, 또 화자의 욕망이 그려져 있지 않다. '진평'의 엄마인 '남양덕'에게는 모든 비행기가 자신의 아들의 비행기로 보인다고 하여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